FX Market Daily

2024-01-10

전일동향

전일대비 0.30원 하락한 1,315.70원에 마감

9일 환율은 전일대비 0.30원 하락한 1,315.7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4.00원 하락한 1,312.00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간밤 달러 약세 등을 반영해 하락 출발했으나, 결제수요로 1,310원 부근에서 하단이 지지됐다. 오후 장에서 환율은 위안화 약세와 코스피 하락 전환 등에 낙폭을 축소하며 1,315.7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7.5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13.75원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12.00	1316.30	1308.80	1315.70	1312.10
엔화	912.84	915.83	908.25	910.37	-
유로화	1441.64	1442.40	1434.05	1437.78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68	-6.37	-13.06	-25.17
결제환율(수입)	-1.33	-5.36	-11.51	-22.58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美 CPI 경계감에...1,320원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15.70) 대비 5.05원 상승한 1,318.4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CPI 관망 속 연준 금리인하 기대 축소에 상승이 예상된다. 내일밤 미 12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와 시기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이었다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제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보먼 연준 이사는 추가 금리 인상 없이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지만 아직 금리인하를 시작하는 지점에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같은 연준 위원들의 경계성 발언에 시장에서 금리인하 기대감이 위축됨에 따라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간밤 뉴욕증시가 대체로 부진했고 국내 증시 또한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여 금일 환율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15.00 ~ 1325.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81.7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5.05원↑
	■ 美 다우지수 : 37525.16, -157.85p(-0.42%)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1.7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62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